

또 하나의 가을잔치... 무등기 사회인 야구대회 열전 돌입

영광 대마산단 야구장에서 내일 개막
무등리그 8팀·광일리그 8팀 우승 도전

광주·전남 사회인야구인들의 '가을 잔치'인 무등기 야구 대회를 앞두고 있다. 광주일보와 전남문화가 주최하는 제12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가 영광 대마산단 야구장에서 10월 1일 개막한다. 이번 대회는 무등리그와 광일리그로 나눠 챔피언을 가리게 된다. 리그별로 8개팀씩 참가해 정상에 향한 도전을 펼치게 된다. 개막 첫 주 8경기가 진행된다. 10월 1일 오전 9시 광일리그의 TOT LINE과 킹가이즈가 개막전을 갖고 무등기 시작을 알린다. 이어 오전 11시 웨리우스-화이트사크스, 오후 1시 (주)삼진-시원병원, 오후 3시 정진산업스카이-뉴욕야시장이 대결을 갖고 광일리그 4강 팀을 가리게 된다. 10월 2일에는 무등리그 4경기가 펼쳐진다. 가장 먼저 END-자연환경이 오전 9시 맞대결에 나선다. 이어 오전 11시 블링블링-에어패스파죽지세, 오후 1시 파트너스-포플레이포비스, 오후 3시 카오스-그린라인의 경기가 진행된다.

10월 9일에는 준결승 4경기가 진행된다. 무등기를 차지할 우승팀을 가리는 결승전은 10월 16일 치러진다. 지난해 무등리그 우승팀인 자연환경이 정상 지키기에 나선다. 또 지난해 광일리그를 제패했던 그린라인이 무등리그로 자리를 옮겨 우승에 도전한다. 무등리그와 광일리그 우승팀에 각각 트로피와 함께 상금 50만원이 주어진다. 각 리그 준우승팀에는 트로피와 상금 30만원이 수여된다. 공동 3위 팀들은 상금 10만원을 받는다. 개인 시상도 준비됐다. 우승팀 감독과 최우수선수는 트로피와 상금 10만원을 받는다. 우수선수과 최우수심판 시상도 이뤄진다. 지역 사회인야구인들의 '가을 잔치'에 광주시아구소프트볼협회(회장 나훈)와 영광야구소프트볼협회(회장 최영민)가 함께 한다. 한편 전남도와 KIA 타이거즈도 대회 후원을 맡아 지역 사회인 야구 발전에 역할을 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양키스 애런 저지, 시즌 61호 홈런 쳤다 미국 메이저리그(MLB) 뉴욕 양키스의 애런 저지가 29일 캐나다 토론토의 로저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토 블루제이스와의 경기 7회에 2점 홈런을 치고 있다. 그는 61호 홈런을 기록해 1961년 뉴욕 양키스의 로저 매리스가 세운 양키스 및 아메리칸리그 한 시즌 최다 홈런 기록과 타이틀을 이뤘다. /연합뉴스

KIA 장현식 "5년 만의 '가을 잔치' 기대 커요"



포스트시즌은 '동기 부여'의 무대
비시즌 임하는 생각도 달라질 것

KIA 타이거즈의 장현식이 5년 만의 '가을 잔치'를 그리고 있다.

한때 9연패의 늪에 빠지면서 위기에 봉착했던 KIA는 NC와의 '운명의 3연전' 승자가 되면서 한층 유리한 고지에서 5위를 위한 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4년 만의 포스트시즌을 노리고 있는 KIA, 선수단의 마음은 간절하다. 지난 2009년과 2017년 팀이 우승은 이뤘지만 결정적인 순간을 경험한 선수는 적다. 특히 마운드에서는 가을 잔치가 궁금한 초보 선수들이 많다.

KIA 투수진 중 포스트시즌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는 2017년 한국시리즈 MVP에 빛나는 양현종과 2017년 첫 한국시리즈에서 승리투수가 됐던 임기영, NC 유니폼을 입고 2016·2017년 포스트시즌을 뒀던 장현식 세 명 밖에 없다.

경험했던 만큼 장현식은 큰 무대를 그리워하고 있다. 김박했던 순간 장현식은 5강 싸움에 큰 힘을 보탤다. 지난 NC와의 '운명의 3연전'에서 두 경기에 나와 2.1이닝 무실점 호투로 1홀드를 기록하는 등 2승에 역할을 했고, 삼성과의 경기에서 0.2이닝 무실점 피칭으로 홀드를 올렸다.

장현식은 "한 달 가량 아파서 쉬다 오니까 민폐만 되지 말자는 생각으로 하고 있다. 나가면 민폐 되지 말고 말은 바 역할만 잘하자고 마음 먹으니 좋은 결과 나오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장현식은 포스트시즌을 '동기 부여'와 '성장의 무대'라고 말한다. 장현식은 "아직 못 해본 선수들이 많으니까 선수들에게 동기 부여가 될 것 같다. 또 경험 유무에 따라서 내년, 내후년에 차이가 있다"며 "지금 조금 힘들지만 힘내서 가을 야구하는 게 팀에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압박감, 중압감이 다르니까 경험을 하면 긴장도 덜고 자신의 플레이를 점점 더 잘하게 된다. 하다 보면 재미있고 계속 가고 싶은 무대. 와일드카드 결정전은 한판으로 끝날 수 있으니까 더 높은 곳에서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



장현식

게 될 것이다. 높은 곳에 있으면 더 많은 경기를 할 수 있다"며 "가을 무대 갔다가 끝나고 나면 비시즌 임하는 생각도 달라지고 그럴 것이다. 나부터도 좋아질 것이다"고 이야기했다.

"가을잔치" 목표를 위해 젊은 투수들은 뽕뽕 뭉쳐 시즌을 보내왔다. 그만큼 가을 야구로 노력의 결실을 맺고 싶은 마음이다.

장현식 개인적으로도 불펜에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궁금하다. 장현식은 "(NC에서) 가을 잔치할 때는 선발역할을 했었는데 중간으로 나가면 무슨 기분이 들까 궁금하다. 선발도 떨리긴 하는데 던지다 보면 괜찮다. 중간은 매 경기 피를 말릴 것 같다"며 "정규시즌도 이런 데 더 압박되고 중압감 느끼고 하다 보면 어떨까 궁금하다. 그나마 경험이 있으니까 많이 도와주면서 함께 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빨리 5위 확정하면 마음 편하게 준비할텐데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선수들이 한마음으로 하다 보면 5위 확정하고 환호하고 즐겨워하는 순간이 올 것이다"며 또 다른 가을 무대를 기대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역대 최다승 25승 도전

10월 2일 대전과 K리그2 42R

'조기 우승'에 이어 K리그2 최다승점 기록을 갈아치운 광주FC가 또 다른 역사에 도전한다. 이번 목표는 최다승이다.

광주는 2일 오후 1시 30분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대전하나시타즌을 상대로 K리그2 2022 42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챔피언' 광주의 놀라운 도전이 이어지고 있다. 4경기를 남겨두고 K리그2 복귀를 확정된 광주는 지난 41라운드 안산그리너스와의 홈경기에서는 산드로, 박한빈, 두현식의 골로 3-0 승리를 거뒀다.

이 승리로 광주는 24승 9무 4패의 전적을 기록하면서 승점 81점을 만들었다.

2017년 경남FC가 작성한 최다승점 79점을 넘어선 신기록이다. 놀라운 시즌을 이끌어온 이정호 감독의 시선은 더 먼 곳을 보고 있다.

이 감독은 안산전 승리 후 '승점 90점'을 목표로 내세웠다. 남은 세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겠다는 선전포고다.

일단 광주는 이번 대전전에서 승리를 가져오면 역시 경남이 2017년 작성한 K리그 역대 최다승 기록을 갈아치우게 된다.

창은 매섭고, 방패는 든든하다. 산드로가 3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하는 등 절정의 골 감각으로 광주 공격을 이끌고 있다. 안산전에서 부상 복귀전을 치른 엄지성도 좋은 경기력으로 산드로의 골을 도왔다.

광주는 앞선 안산전에서 3골을 만들면서 62골로 최다득점 1위 자리를 찾았다.

센터백으로 나선 박한빈은 적극적인 오버래핑과 함께 후반 9분 마이키의 크로스를 추가골로 연결하며 맹활약했고, 경기 종료 직전에는 폴백 두현식이 강력한 슈팅으로 쐐기골을 기록하는 등 공격 루트도 다양하다.

광주는 최소실점 1위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37경기에서 30실점, 추종을 불허하는 견고함을 보여주고 있다.

안산전에서는 주전 골키퍼 김경민의 부상 공백을 메운 이준의 뛰어난 활약까지 더해져서 완벽한 공수밸런스를 보여주고 있다.

대전은 18승 10무 8패로 2위에 자리하고 있다. 레안드로와 마사, 윌리안, 조유민, 주세종, 카이저 등 K리그2 최고 수준의 선수를 보유하고 있고 최근 5경기에서는 3승 2무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올 시즌 맞대결에서는 광주가 대전에 2승 1무로 앞서 있다. 이번에 승리를 거두면 역대 대전에서 10승 7무 10패를 기록할 수 있다.

K리그2 새 기록에 도전하는 광주와 자존심을 건 2위 대전의 대결, 광주는 적극적인 압박과 빠른 공격으로 상대 골문을 노릴 계획이다.

광주 이정호 감독은 "광주의 축구는 현재 진행형이다. 2023년은 더 높은 곳에서 도전을 이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설 틈이 없다"며 "대전전뿐 아니라 매 경기에서 부족한 점을 찾고, 보완해나가는 작업을 반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